



담양에 훈련캠프를 차린 '골프지존' 신지애가 11일 오전 동료 프로골퍼 정영현과 함께 담양 가산골프장에서 어프로치 샷 훈련을 위해 코스에 들어서고 있다. /담양=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시즌도 우승 퍼레이드 계속” 신지애 고향서 재충전 샷

아버지 신제섭씨와 동행...담양서 어프로치 샷 다듬기

‘골프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고향에서 올시즌 세계정상을 향한 ‘재충전 샷’을 날리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담양에 훈련캠프를 차린 신지애는 오는 16일까지 담양 가산골프장에서 부산 출신 프로골퍼 정영현(동아회원권)과 함께 샷 다듬기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신지애는 이번 훈련에 최근 ‘파이널 퀸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라는 책을 발간한 아버지 신제섭씨(50)와 함께 동행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일본여자프로골프 시즌 개막전인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신지애는 오는 18일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담양에 머물며 어프로치 샷 조절과 클럽 교체작업을 가질 계획이다.

11일 검정색 상하의 차림의 신지애는 정영현과 9홀을 두 차례 돌면서 어프로치 샷 훈련에 집중했다. 이날 신지애의 샷은 매 홀마다 홀 주변 50cm 이내에 떨어지는 정교함을 보여줬다. 두 골퍼는 이날 서로의 근황과 골프 얘기를 주고받으며 라운딩을 마쳤다. 오전 실전훈련을 끝낸 신지애는 오후엔 광주로 이동, 실내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샷 훈련을 갖는다.

지난 2004년부터 딸을 데리고 가산골프장을 찾은 신제섭씨는 “100m 이내의 홀 공략을 위한 어프로치 샷을 다듬기에는 이곳이 최적지이다”면서 “이 곳에서의 훈련이 지애의 시즌 샷 감각 익히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담양행 이유를 밝혔다.

신지애는 지난 1월부터 6주간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달리며 체력다련에 주력했다.

예년보다 고강도의 훈련으로 체력을 키워 온 신지애는 기존에 사용해 온 클럽이 자신의 파워에 맞지 않아 이번 기회에 교체기로 결정할 것이다.

라운딩을 마친 후 신지애는 “올해도 고향 팬들의 성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간단히 인사말을 건넸다.

신지애는 아버지의 최근 책 발간에 대해서 “아직은 다 읽지 못했지만 그간 뒷바라지 해주신 아버지의 고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면서 “예전에 나도 이렇게 힘들게 운동했었다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평소 아버지가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책을 펴낼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제섭씨는 이번에 출간한 ‘파이널 퀸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라는 책에서 신지애가 어머니를 교통사고 잃은 뒤 슬픔을 극복하고 세계정상에 서기까지 훈련 과정과 에피소드, 가족 이야기 등을 담았다. 신제섭씨는 또 이 책에서 골프 선수를 자식으로 둔 부모를 위한 조언, 코스 공략법,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 등도 소개했다.

이 책은 발간 이틀만에 1만부가 팔려 재판에 들어갈 정도로 팬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신제섭씨는 “지애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책으로 발간해 못다한 얘기를 풀어내고 싶었다”면서 “둘째 딸과 아들의 얘기를 다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신지애는 16일까지 담양에 머무른 후 18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담양=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9월에 남자골프 한·일전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급 남자골퍼들이 오는 9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샷 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와 일본프로골프투어(JPTO)는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인식을 갖고 양팀 10명씩 출전하는 한일프로골프 국가대항전을 개최

하기로 했다.

타이틀 스폰서는 현대캐피탈이 맡기로 했고 9월1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남양주 해비치 골프장에서 열린다.

한국과 일본의 골프 국가대항전은 2004년 한차례 개최된 이후 6년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은 조만간 선수선발위원회를 구성, 해외파 4명, 국내파 4명, 단장 추천 선수 2명 등 모두 10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첫날에 포볼 5경기, 둘째날 포볼 5경기, 셋째날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 10경기가 열리며 승자에게는 1점, 무승부는 0.5점이 주어진다. 총상금은 70만달러이며 승리팀은 40만달러, 패한 팀은 20만달러,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 승자는 각 1만달러씩 모두 10만달러를 받는다. /연합뉴스



1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서재응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재응 바뀐 투구폼 일단 합격

넥센과 시범경기서 역투...부활 예고
KIA 선발 후보군 1차 점검 마무리

KIA 마운드 1차 점검이 마무리 됐다.

11일 KIA 타이거즈의 투수 서재응과 이대진이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 등판해 선발 테스트를 받았다.

3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서재응은 폭투로 1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바뀐 투구폼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격점을 받았다. 10일 한화전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이대진은 폭설로 하루 연기된 등판에서 황재균에게 투런포를 얻어맞는 등 3이닝동안 5피안타 3사사구 3실점으로 부진했다.

팀은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백전노장 이종범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득점에 실패해 2-4로 패했다.

11일 두 노장 투수의 등판을 끝으로 KIA 선발 후보군들의 1차 테스트가 완료됐다. 선발 후보군 중 윤석민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등판을 걸렀지만 다음 로테이션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격할 예정이다.

조범현 감독이 준비하고 있는 6선발 체제 구상에서 로페즈, 로드리게스 두 용병과 양현종, 윤석민은 미리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

로페즈, 양현종은 1차 테스트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조범현 감독에게 믿음을 주었다. 꾸준한 상승세로 눈길을 끌고 있는 신에 전태현도 앞선 9일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선발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이동현도 트레이드 마크인 ‘돌직구’를 앞세워 산뜻한 출발을 했다.

11일 나란히 마운드에 오른 서재응과 이대진 두 투수는 ‘노련미’로 선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두 노장의 경쟁구도에서는 서재응이 먼저 웃었다.

조범현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서재응이 실전 감각이 다소 떨어지고, 구위도 완전히 없지만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대진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를 점검하느라

실전 피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워밍업에 나섰던 선발진들은 앞으로 등판에서 투구수를 100개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로드리게스가 가장 먼저 출격한다. 12일 로드리게스는 넥센과의 2번째 시범경기 선발로 등판해 조 감독의 매서운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선 등판에서 2이닝 동안 25개의 공을 던졌던 로드리게스는 이번에는 5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시범경기서 멀티히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범경기에서 2안타를 치며 타점도 뽑아냈다.

추신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시범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렸다.

지난 6일 신시내티 레즈와 첫 시범경기에서 타점을 올린 이후 3경기 만에 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타율도 0.455로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연아 아이스쇼

15일부터 입장권 판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0·고려대)가 출연하는 ‘KCC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10’(4월16~18일·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입장권이 15일부터 판매된다.

11일 아이스쇼를 주최하는 IB스포츠에 따르면 입장권은 15일 오후 7시부터 G마켓(www.gmarket.com)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가격은 SR석 19만8000원, R석 15만4000원, S석 11만원, A석 7만7천원, B석 4만4000원이다. KB카드 결제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CC 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은 총 3회 공연으로 4월 16일 오후 8시, 17일 오후 5시, 18일 오후 6시에 각각 열린다.

총연출을 맡은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IB스포츠를 통해 “이번 아이스쇼에서 올림피의 감동과 환상적인 축제의 이야기를 함께 담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